

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

관리번호	소관상임위원회	담당부서	추진사항
2018-45-40	문화복지위원회	고양문화재단	완료

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

□ 문화재단 인사 운영에 관하여

- 조직개편은 행정절차 및 법적문제 없이 진행하고 직원인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균형있는 인사 운영을 당부 드림
- 과거 불공정 심사를 통해 채용된 직원들 전부 점검해서 사직처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보고 바람.

처 리 결 과

- 2018년 7월 30일자 조직개편으로 재단은 조직의 슬림화 및 결재 과정을 단순화하였음.
 - 또한, 직원들의 희망 보직과 경력을 반영한 전환배치를 통해서 개인들의 업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정부 합동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, 재단도 조사대상 기관으로, 조사 개시되면 투명한 조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음. 향후 채용과정은 시에서 추진하는 ‘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’을 통해 진행하여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꾀하고자 함.

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

관리번호	소관상임위원회	담당부서	추진사항
2018-45-41	문화복지위원회	고양문화재단	완료

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

□ 부당해고 관련 원인파악 및 대책방안 강구

- 부당해고 사건과 통상임금 등 2, 3년 전 발생한 문제들을 철저히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방안과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 및 재단이 나아갈 방향 등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
- 재단의 법정소송을 집행하는데 노무사 비용 및 소송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, 앞으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주기 바람.

처 리 결 과

- 재발 방지 대책
 - 재단의 중요 사업 추진 전에 노무사·변호사 등 철저한 법률 검증을 통하여 합리적 업무처리 및 소송 발생 방지에 노력
 - 재단 자문변호사, 고양시 자문변호사 등의 면밀한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재단의 실익이 없는 소송은 신속하게 종결하거나 소송 미추진
 - 인사위원회 및 내부감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직원 징계 등의 사안은 객관적, 공정·타당한 처리 노력
 - 지속적인 규정 정비를 통한 업무 합리화 추진
- 법정소송 비용 투명성 확보 마련
 - 소송대리인 선임기준, 선임제한, 선임방법 등 기준 마련을 위해 「소송업무규정」 과 「소송업무 운영 지침」 을 제정·시행 중
 - 특히 선임료 지급은 대법원의 「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」 을 준용하여 소송물 가액에 비례한 착수금 산정 기준 운영 중
- 법정소송 외 지방노동위원회 등 심판관련 대리인 선임 시에도 기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

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

관리번호	소관상임위원회	담당부서	추진사항
2018-45-42	문화복지위원회	고양문화재단	추진중

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

□ 고양시립오케스트라 관련

- 사업 추진단계 계획에 있어서
 - 고양시가 10억 원의 예산으로 전국공모를 하였는데 실제로는 교향악단 운영비는 5억 원으로서 최초 계획단계부터 잘못되었음.
- 선정 심사대행에 대하여
 - 사업 계획수립 시부터 세부적인 항목을 설정하여 심사대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
 -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성의 이유로 외부업체에 맡겨 결국 용역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였고, 문화재단이 자체심사를 하였으면 예산절감 되었음
- 공모 실연심사에 관하여
 - 공연 실연심사 시에도 심사위원의 검증이나 전문성 여부 등을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됨
 - 실연 지정곡 선정 시에도 지원 단체 중 공연스케줄에 지정곡이 있는데도 이를 지적하거나 지정곡을 변경하지도 않음
- 심사평가표에 대하여
 - 심사평가표는 주관적인 사항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평가에는 기준점수가 없어 특정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.
 - 심사점수에도 계산에 오류가 발견되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이 밝혀짐.
- 앞으로는 모든 공모사업에 있어 추진계획부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수립하여 예산반영하고 심사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제출서류 검토와 심사위원 등의 적격성 여부 등을 자체적인 심사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수립하여 공정한 공모사업이 되도록 매뉴얼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.
- 당초 계획한 지역문화육성, 공정한 심사 등에 심각한 문제가 확인되었고, 공공문화활동이 미진한 바, 2019년 사업의 전면 재조정과 2020년 이후 새로운 정책 마련이 필요함.

처 리 결 과

-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타 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추진계획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음.
- 2019년 사업은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진행 중이며, 2020년 이후는 시민들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임.

2018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

관리번호	소관상임위원회	담당부서	추진사항
2018-45-43	문화복지위원회	고양문화재단	완료

시 정 및 처 리 요 구 내 용

□ 아람음악당 상근 또는 전속 조율사 관련

- 아람음악당 등에서 연주회를 진행하는 단체들 대부분 피아노 조율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음. 재단에 비치되어 있는 피아노는 고가의 것으로 이를 함부로 조율할 경우 관리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. 이를 관리하는 상근 또는 전속 조율사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.

처 리 결 과

- 아람음악당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조율은 아람누리 개관 때부터 현재까지,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전문적으로 피아노를 조율해 왔던 조율사를 직접 섭외하여 기획, 대관 할 것 없이 피아노를 사용하는 일체의 공연에 조율을 맡기고 있음.
- 음악당 피아노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가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악기이므로, 검증되지 않은 조율사가 함부로 조율하는 경우는 없음.
- 조율사의 상근 및 직접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연 40~50건 밖에 되지 않은 사용 빈도수에 비해 과다 인건비 지급이 예상되므로 현재와 같이 매 건별 같은 전문가에게 조율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.
- 또한, 개관이후 현재까지 같은 조율사에게만 조율 및 관리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아람누리에 전속되어 있지는 않지만, 사용자 관점에서는 전속의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임.